

2022년 10월 12일 공보 2022-10-09호

보도자료

이 자료는 배포시부터 취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제 목 : 2022년 10월 12일 통화정책방향 관련 참고자료

“한국은행 기준금리를 상향 조정하게 된 배경”

(붙임 참조)

문의처: 통화정책국 정책총괄팀 팀장 박영환, 차장 이화연

Tel: (02) 759-4461, 4066 Fax: 759-4485 E-mail: mpdept@bok.or.kr

공보관: Tel: (02) 759-4028, 4016

“한국은행 보도자료는 인터넷(<http://www.bok.or.kr>)에 수록되어 있습니다.”



한국은행 기준금리를 상향 조정하게 된 배경

[정책 결정]

- 금융통화위원회는 다음 통화정책방향 결정시까지 한국은행 기준금리를 현재의 2.50%에서 3.00%로 상향 조정하여 통화정책을 운용하기로 하였다. 높은 물가 오름세가 지속되는 가운데 환율 상승으로 인해 물가의 추가 상승압력과 외환부문의 리스크가 증대되고 있는 만큼 정책대응의 강도를 높일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였다.

[대외경제 여건]

- 세계경제는 높은 인플레이션 지속, 미 연준의 긴축 기조 강화, 우크라이나 사태 장기화 등의 영향으로 경기 둔화가 이어졌다.

세계경제지표

		21.4/4	22.1/4	2/4	3/4	6월	7월	8월	9월
미국	GDP성장률 ¹⁾ (전기비연율, %)	7.0	-1.6	-0.6	..	-	-	-	-
	소매판매 ¹⁾ (전기비, %)	2.4	3.3	2.6	..	1.0	-0.4	0.3	..
	산업생산 ¹⁾ (전기비, %)	1.2	1.2	1.3	..	0.0	0.5	-0.2	..
	ISM제조업 ²⁾ (기준=50)	60.1	57.8	54.8	52.2	53.0	52.8	52.8	50.9
	실업률 ¹⁾ (%)	4.2	3.8	3.6	3.6	3.6	3.5	3.7	3.5
	비농기취업자수증감 ¹⁾ (전기비 만명)	175.9	172.0	122.6	115.9	29.3	53.7	31.5	26.3
유로	GDP성장률 ¹⁾ (전기비연율, %)	2.0	2.7	3.1	..	-	-	-	-
	소매판매 ¹⁾ (전기비, %)	0.4	-0.4	0.4	..	-1.0	-0.4	-0.3	..
	산업생산 ¹⁾ (전기비, %)	0.0	0.8	0.2	..	1.1	-2.3
	제조업PMI ²⁾ (기준=50)	58.2	57.8	54.1	49.3	52.1	49.8	49.6	48.4
	실업률 ¹⁾ (%)	7.1	6.8	6.6	..	6.7	6.6	6.6	..
	수출 ¹⁾³⁾ (전기비, %)	4.8	6.0	5.6	..	-0.5	-1.7
일본	GDP성장률 ¹⁾ (전기비연율, %)	3.9	0.2	3.5	..	-	-	-	-
	소매판매 ¹⁾ (전기비, %)	1.5	-0.9	1.8	..	-1.3	0.7	1.4	..
	산업생산 ¹⁾ (전기비, %)	0.2	0.8	-2.7	..	9.2	0.8	2.7	..
	제조업PMI ²⁾ (기준=50)	54.0	54.1	53.2	51.5	52.7	52.1	51.5	50.8
	수출 ¹⁾ (전기비, %)	4.9	3.6	6.1	..	3.9	2.1	-0.7	..
	GDP성장률(전년동기비, %)	4.0	4.8	0.4	..	-	-	-	-
중국	소매판매(전년동기비, %)	3.5	3.3	-4.6	..	3.1	2.7	5.4	..
	산업생산(전년동기비, %)	3.9	6.5	0.7	..	3.9	3.8	4.2	..
	제조업PMI ²⁾ (기준=50)	49.9	49.9	49.1	49.5	50.2	49.0	49.4	50.1
	수출(전년동기비, %)	22.9	15.5	12.5	..	17.4	17.9	7.1	..
	교역량증가율 ⁴⁾ (전년동기비, %)	7.4	6.0	4.9	..	5.0	6.9

주: 1) 계절조정 기준 2) 분기수치는 기간중 월평균 3) 역내거래 제외 4) 상품수입량 기준

- 국제금융시장에서는 미 달러화 강세 기조 강화로 주요국의 통화 가치가 절하된 가운데 장기시장금리가 큰 폭 상승하고 주가가 하락하였으며, 일부 국가에서는 금융불안이 나타났다.
- 앞으로 세계경제와 국제금융시장은 국제원자재가격 및 글로벌 인플레이션 향방, 주요국의 통화정책 변화 및 미 달러화 움직임, 지정학적 리스크 등에 영향받을 것으로 보인다.

국제금융지표

		22.5월	6월	7월	8.24일	9월	10.11일
전세계 MSCI ¹⁾		652.8	596.8	637.7	635.0	553.4	552.1
- 선진국		2,791.0	2,546.2	2,746.4	2,736.0	2,378.7	2,376.3
- 신흥시장국		1,077.7	1,000.7	993.8	985.1	875.8	864.7
VIX ¹⁾		26.2	28.7	21.3	22.8	31.6	33.6
환율 ¹⁾	달러인덱스	101.8	104.7	105.9	108.7	112.1	113.2
	신흥시장국 ²⁾	52.8	51.6	50.4	50.1	48.4	48.3
	중국 ³⁾	6.66	6.70	6.74	6.87	7.12	7.17
국채금리 ¹⁾⁴⁾ (%)	미국	2.84	3.01	2.65	3.10	3.83	3.95
	독일	1.12	1.34	0.82	1.37	2.11	2.30
CDS프리미엄 ¹⁾ (bp)	브라질	224.0	294.9	273.2	255.1	312.3	299.7
	인도네시아	101.4	144.0	115.0	112.4	159.5	167.2
	한국	45.0	53.5	40.1	33.3	57.5	61.6
유가 ¹⁾⁵⁾ (달러/배럴)	WTI	114.7	105.8	98.6	95.6	79.5	89.4
	Brent	119.9	115.0	108.0	101.4	86.2	93.8
신흥국 글로벌펀드자금 유입 (월중, 억달러)		-237.1	-96.6	-96.9	-9.9 ⁶⁾	-89.2	-30.5 ⁷⁾

주: 1) 기말 기준 2) JPMorgan 신흥국지수 기준

4) 10년물 기준 5) 현물 기준

7) 9.29~10.5일 기준

3) 미 달러화 대비

6) 7.28~8.24일 기준

[실물경기]

□ 국내경제는 소비가 회복 흐름을 이어갔지만 수출 증가율이 낮아지면서 성장세가 둔화되었다. 고용 상황은 큰 폭의 취업자수 증가가 이어지는 등 개선세를 지속하였다. 앞으로 국내경제는 글로벌 경기 둔화, 금리 상승 등의 영향으로 성장세가 점차 낮아질 것으로 예상된다. 금년 성장률은 지난 8월 전망치(2.6%)에 대체로 부합하겠지만 내년은 지난 전망치(2.1%)를 하회할 것으로 전망된다.

실물경제지표

	2020	2021	21.4/4	22.1/4	2/4	3/4	7월	8월	9월
GDP 성장률 ¹⁾	-0.9	4.0	1.3	0.6	0.7	..	-	-	-
(민간소비)	-4.8	3.7	1.5	-0.5	2.9	..	-	-	-
(설비투자)	7.2	9.0	-0.2	-3.9	0.5	..	-	-	-
(건설투자)	1.5	-1.6	2.0	-3.9	0.2	..	-	-	-
소매판매액지수 ²⁾	-0.2	5.9	1.1	-1.1	-1.1	..	-0.4	4.3	..
설비투자지수 ²⁾	5.9	9.6	-0.2	0.2	-1.2	..	-3.5	8.8	..
건설기성액 ²⁾	-2.1	-6.7	4.1	-1.9	1.4	..	-2.9	5.0	..
수출(통관) ³⁾	-5.5	25.7	24.5	18.4	13.0	6.0	8.7	6.6	2.8
- 일평균 ³⁾	(-5.7)	(25.7)	(21.9)	(20.3)	(13.8)	(5.2)	(13.3)	(2.1)	(0.4)
제조업생산지수 ²⁾	-0.2	7.6	1.3	3.9	-1.7	..	-1.6	-1.6	..
서비스업생산지수 ²⁾	-2.0	4.4	1.5	0.0	2.8	..	0.2	1.5	..
소비자심리지수 ⁴⁾	87.9	103.1	106.0	103.6	100.9	88.7	86.0	88.8	91.4
기업경기실사지수 ⁴⁾⁵⁾	66	92	92	88	85	78	80	80	74
취업자수 증감 ³⁾⁴⁾	-21.8	36.9	66.0	100.1	88.0	..	82.6	80.7	..
고용률(원계열)	60.1	60.5	61.1	60.5	62.7	..	62.9	62.8	..
실업률(원계열)	4.0	3.7	2.9	3.5	3.0	..	2.9	2.1	..

주: 1) 계절조정, 전기비 2) 계절조정, 전기비, 통계청 「산업활동동향」 기준
 3) 전년동기비 4) 연·분기수치는 기간중 월평균 5) 제조업 업황실적 BSI 기준

[물 가]

□ 소비자물가는 석유류 가격 오름세 둔화에도 개인서비스 및 가공식품 가격의 상승폭이 확대되면서 5%대 중후반의 높은 오름세를 지속하였다. 균원인플레이션율(식료품 및 에너지 제외 지수)과 기대인플레이션율도 4%대의 높은 수준을 이어갔다. 앞으로 소비자물가는 환율 상승의 영향 등이 추가 물가 상승압력으로 작용하면서 상당기간 5~6%대의 높은 오름세를 지속할 것으로 예상된다. 금년 및 내년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8월 전망치(5.2% 및 3.7%)에 대체로 부합하겠지만, 경기 둔화에 따른 하방압력에도 불구하고 환율 상승, 주요 산유국의 감산 등으로 상방 리스크가 큰 것으로 판단된다.

물가상승률

(전년동기비, %)

	21.4/4	22.1/4	2/4	3/4	7월	8월	9월
소비자물가 ¹⁾	3.5 (1.0)	3.8 (1.5)	5.4 (2.1)	5.9 (1.1)	6.3 (0.5)	5.7 (-0.1)	5.6 (0.3)
▪ 농축수산물	5.2	2.7	3.6	6.8	7.1	7.0	6.2
▪ 공업제품	4.6	5.4	8.5	7.5	8.9	7.0	6.7
(석유류)	29.1	22.5	36.3	23.7	35.1	19.7	16.6
(석유류 제외)	1.5	3.1	4.5	5.1	5.0	5.1	5.2
▪ 전기·수도·가스	1.4	2.9	8.7	15.3	15.7	15.7	14.6
▪ 서비스	2.8	3.0	3.5	4.1	4.0	4.1	4.2
(공공서비스)	2.7	0.8	0.7	0.7	0.8	0.8	0.7
(개인서비스)	3.1	4.2	5.1	6.1	6.0	6.1	6.4
근원인플레이션율							
▪ 식료품·에너지 제외	2.2	2.8	3.5	4.0	3.9	4.0	4.1
(관리물가 ²⁾ 제외)	2.1	3.3	4.1	4.8	4.7	4.8	4.8
▪ 농산물·석유류 제외	2.6	3.2	4.0	4.5	4.5	4.4	4.5
기대인플레이션율 ³⁾	2.6	2.7	3.4	4.4	4.7	4.3	4.2

주: 1) ()내는 전기비

2) 시장에서의 수요·공급보다는 정부의 직·간접적 영향을 크게 받는 가격으로, 공공서비스, 전기·수도·가스, 담배, 급식 등의 가격을 포함

3) 향후 1년간 소비자물가상승률 전망(일반인 기준), 분기수치는 기간중 월평균

[금융시장]

- 금융시장에서는 미 달러화 강세와 엔화, 위안화 약세 등에 영향받아 원/달러 환율이 크게 상승하고 외국인 증권투자자금이 순유출되는 등 외환부문을 중심으로 변동성이 확대되었다. 장기시장금리는 큰 폭 상승하였고 주가는 크게 하락하였다.

국내금융지표

	22.5월	6월	7월	8.24일	9월	10.11일
국고채금리 ¹⁾²⁾ (3년물, %)	3.03	3.55	3.01	3.31	4.19	4.34
국고채금리 ¹⁾²⁾ (10년물, %)	3.33	3.64	3.13	3.43	4.10	4.31
통안증권금리 ¹⁾²⁾ (91일물, %)	1.76	1.87	2.30	2.44	2.81	2.80
CP금리 ¹⁾²⁾ (91일물, %)	2.15	2.34	2.86	2.86	3.30	3.51
회사채금리 ¹⁾³⁾ (3년, AA-, %)	3.81	4.36	3.98	4.30	5.28	5.38
(3년, BBB-, %)	9.66	10.22	9.84	10.15	11.13	11.28
KOSPI ¹⁾	2,686	2,333	2,452	2,447	2,155	2,192
원/달러 환율 ¹⁾	1,237	1,298	1,299	1,342	1,430	1,435
원/100엔 환율 ¹⁾	968	953	980	982	990	985
외국인 주식순매수(조원)	0.2	-6.2	1.8	2.8 ⁴⁾	-2.5	0.6 ⁵⁾

- 가계대출은 소통 감소하고 주택가격은 하락폭이 확대되었다

가계·기업대출 및 주택가격

	21.4/4	22.1/4	2/4	3/4	5월	6월	7월	8월
은행 기업대출 증감(조원)	16.7	28.2	31.3	30.3	13.1	6.0	12.2	8.7
▪ 대기업	3.3	5.7	9.3	12.9	4.3	0.6	5.4	2.9
▪ 중소기업	13.4	22.5	22.0	17.3	8.9	5.4	6.8	5.8
은행 가계대출 증감 ¹⁾ (조원)	7.9	-1.7	1.8	-1.3	0.4	0.2	-0.3	0.3
▪ 주택담보대출 ¹⁾	9.0	6.0	4.3	4.5	0.8	1.4	2.0	1.6
▪ 기타대출 ²⁾	-1.2	-7.7	-2.6	-5.7	-0.5	-1.2	-2.3	-1.3
주택 매매가격 ³⁾ (%)	1.8	0.1	0.1	..	0.0	-0.0	-0.1	-0.3
▪ 수도권 ³⁾⁴⁾	2.2	0.0	-0.1	..	-0.0	-0.0	-0.1	-0.4
(서울) ³⁾	1.5	0.0	0.1	..	0.0	-0.0	-0.1	-0.2
▪ 지방 ³⁾⁵⁾	1.4	0.3	0.2	..	0.1	0.0	0.0	-0.2

[향후 정책 방향]

- 금융통화위원회는 앞으로 성장세를 점검하면서 중기적 시계에서 물가 상승률이 목표수준에서 안정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금융안정에 유의하여 통화정책을 운용해 나갈 것이다. 국내 경기가 둔화되고 있지만, 물가가 목표수준을 크게 상회하는 높은 오름세를 지속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금리인상 기조를 이어나갈 필요가 있다. 이 과정에서 향후 금리인상의 폭과 속도는 높은 인플레이션의 지속 정도, 성장 흐름, 주요국의 통화정책 변화, 자본유출입을 비롯한 금융안정 상황, 지정학적 리스크 등을 면밀히 점검하면서 판단해 나갈 것이다.